

2022 열린 인생 16.

'Holy Shift' (오랜 시간 고착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레위기 18:27-28]

27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포함같이 너희를 포함하 하노라

1. 땅의 법칙

(1) 하나님의 법이 강력한 이유 -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의 문화 때문

원래 하나님의 복은 가장 좋은 것이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무법 생활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 땅 주민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하셨다. 이미 그들의 생활이 되어 버린 악한 문화의 영향 때문이다. 결국 영적 전쟁은 악한 공중 권세자가 만든 견고한 진(문화)과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의 핵심은 '구별'이다. 구별은 바로 '거룩'이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거룩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거룩의 문화는 '거룩한 삶'을 말한다. 하나님의 법이 강력한 이유는 이미 견고한 악의 생활 패턴(문화)을 끊어 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 땅의 주민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2) 땅의 법칙

그 결과, 땅이 더럽혀졌다. 땅은 무엇인가? 삶의 터전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을 다스리고 축복하며 풍성히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다. 우리는 땅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소중히 여기신다. 땅에도 법칙이 있다. 경작자가 중요하다. 누가 땅을 어떻게 경작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땅도 결과가 달라진다.

'땅은 정직하다'

땅이 정직하다는 것은 땅의 본질인 사람도 '정직'하다는 것이다. '정직'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한다. 혼과 욕을 생각해 보자.

(3) 욕과 영

욕과 영은 정직하다. 혼은 속이는 것이다. 욕은 경작하는 대로 반영된다. 잘 경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른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자는 대비된다. 착한 사람은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충성됨은 성실하다는 것이다. 한결같다는 것이다.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원래 약속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땅에서 권한과 권위를 얻는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악함은 '거짓말'이다. 약속을 깬다. 자기를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준다. 규칙이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자와는 함께 거할 수 없다. 땅은 이런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권위를 주지 않는다. 권위를 가진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하는 역행의 권위를 갖는다.

'게으름'은 방치를 뜻한다. 방치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다. 소중히 여긴다면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 자신이 아끼는 것을 방치하는 사람은 없다. 최악의 부모는 아이를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다. 방치 당한 아이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결국 아이의 인생은 망하게 된다. 게으른 자가 망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방치하기 때문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착하고 충성되게 돌보는 것'이다. 조금만 돌봐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신앙(영적인 생활)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다. 땅의 본질인 나 자신이 잘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시편 1편의 삶을 사는 것이다.

(4) 혼은 속인다

생각과 감정은 변한다. 신앙의 승리는 혼의 영역을 어떻게 경작하느냐에 따라 주어진다. 성령의 뜻에 순복하면 정직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된다. 좋은 마음, 감정(기쁨,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된다. 선한 생각, 생명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생각과 감정이 욕의 지배를 받으면 (여기서 말하는 '욕'은 성령이 떠난 악한 영에 지배를 받는 '세속적 욕'을 말한다) 악한 일을 도모한다. 노아의 때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진다. 악함은 사탄이다. 죽이고 파괴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황폐해지고 마지막엔 망한다. 그러므로 혼적인 신앙은 언제나 불안하다. 경작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안내한다. 아니니아와 삽비라, 가룟 유다가 왜 악한 결정을 했는가? 사탄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에 나온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말한다. 순종의 삶을 말한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된다.

(5) 더럽히다

오늘 말씀에 '땅을 더럽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더러워짐'은 오염된 것이다. 오염이란 해로운 것이 유입된 것이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온 것이다. '더럽히다'(타메)=의식적인, 도덕적인 영역의 오염을 말한다. 부패하다. 부정하다는 뜻이 있다. 사람은 무엇이든 '오염'시킬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이 땅을 더럽힐 수 있다. 그만큼 사람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틀을 내어 주지 않**

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고 해석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다.

2. 땅이 토해내다

[레위기 18: 28]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1) 땅이 토하다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이 어렵게 살아가며 망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땅이 그들을 토해냈기 때문이다. '토해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다. 땅이 기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자정 작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종에 가까운 사람의 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몸이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은 '토하는 것'이다. 토하는 것은 몸의 마지막 항변이다. 땅이 토해내는 것도 마지막 항변이다. 그때부터 땅은 사람에게 정직하게 믿고 주었던 모든 권위와 권한을 빼앗는다. 땅도 아는 것이다. **'너는 복의 존재가 아니구나. 너는 결국 가짜구나.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구나. 이제 알았다. 어떤 권위도 권한도 네게 줄 수 없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이 땅이 다 토해낼 것이다'**

악한 토양이 토하다 =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는 악한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이 다시 선포된다. 그 강력한 충동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애굽이 이스라엘을 토해낸다.

(2) 성도의 고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핍박 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이 성도를 토해내고 핍박하는 것이다.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분명 저항이 일어난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다.

공존-충돌-핍박-인내-승리

이 승리의 법칙을 기억하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낸 것은 결국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악함은 거룩함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악함은 거룩함을 담아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닥친 고난과 핍박은 승리를 향한 강력한 사인이다. 이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와 견뎌냄이다. 인내와 견뎌냄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때다. 천사가 움직이는 때다.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다. 모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 이때 악하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고난이 밀려옴은 악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인이다. 우리가 어렵게 인내하고 고난 받을 때 악한 영은 견디지 못한다.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견디지 못했던 것처럼 고난 받는 성도를 견디지 못한다. 사울이 다윗을 견디지 못했던 것처럼 이들은 성도를 공격하고 핍박한다. 바로 이때가 악인이 망하는 때다. 견딘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가 오는 때다.

3. The == Holy Shift

구원은 강력한 전환이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의 전환이다.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모든 것을 전환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 약속의 땅은 이방 문화들을 토해낸다. 이제 약속의 땅은 경작하고 풍성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사람을 기다린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는 전환의 사람이다. 여호수아를 통해 모든 것이 쉬프트 된다. 저주가 축복으로, 불경함이 경건함으로, 악한 문화가 하나님 문화로, 불신이 믿음으로 쉬프트 된다. 다윗도 느헤미야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쉬프트 했다.

[여호수아 1:5-9]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아무 걱정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회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삶이 루틴이 된 여호수아가 걱정할 것은 없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생겨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땅의 형통함을 입는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엄청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기다린다. 할렐루야!